

보도시점 2026. 5. 29.(금) 배포 즉시

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5.29.(금) 서울신문 - 대폐업 시대, 일터기본법으로는 멈출 수 없다(논설)

- 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·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.
-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,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.

2. 설명 내용

□ 현재 입법 추진 중인 ‘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’은 고용 형태, 계약 방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*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,

*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,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,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

- 특정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님

□ 한편,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으로 근로자성이 확대되거나, 새로운 근로자성 기준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며,

- 현재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(8건) 중 4대 보험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안은 없음

□ 정부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입법 취지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(고용·산재),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	책임자	과 장	허기훈 (044-202-7761)
	노무제공자지원과	담당자	사무관	김윤지 (044-202-7762)